

광주·전남 뭉쳐 수도권 집중 맞설 체력 키워라

광주시·전남도 민선 8기 개막

전북까지 연계 호남쇠락 막아야
강기정·김영록 상생 의지 피력
반도체 동맹·광역경제권 실현
정부 행·재정적 뒷받침 필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광주와 전남이 상생 협력을 통해 시·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권역이 지역 발전이라는 의제를 목표로 양보, 조정, 협조, 지원, 확장 등에 나설 경우 호남 전반의 한층 성숙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에 나서고 광주가 전남과 전북을, 전남이 전북의 성장을 챙기는 구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 내 광역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중추도시인 광주가 고도화된 산업·상업 시스템을 구축해 전남·전북의 인구 유입,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강기정호'의 상생 방안=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시정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과의 상생 발전을 강조하면서 "전남에 줄 것이 있으면 충분히 주고, 양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로 이속만 쟁기려는 말뿐인 상생이 아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진심이 담긴 상생이 나서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시가 선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도 광주·전남을 넘어 영남까지 아우르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과 교육의 선순환 창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지방의 생존 전략으로 영호남 산업 동맹을 내세운 것이다.

강 시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니 인재를 거기서 구하고, 수도권에 인재가 있으니 지방대는 소멸

하고, 지방에는 공장이 안 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반도체 동맹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전 이남에 일단 산업과 교육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와 전남에 걸쳐 있는 영산강 주변을 '익사이팅 존'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부분 도시에서 강가, 물길 옆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지만 광주에는 이런 공간과 문화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레저 스포츠나 익스트림 체험장을 조성하는 이른바 와이(Y)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과의 상생 방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다. 강 시장은 대구 사례를 적용해 준비하면서도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다. 전남도도 국가 주도 특별법 개정 계획에 힘을 보태기로 화답했다.

◇전남 '김영록호'의 상생 방안=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전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잇단 '상생 행보'를 가지며 민선 7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와 전남 첫 국립 의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논의하고, 부단체장, 관련 실국장 등도 세부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의 취임사에도 광주·전남 상생 협력을 줄곧 강조해 예정이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 초광역경제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큰 판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행보에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의 위기에 기반하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인구 및 경제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부산·울산·경남의 메카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이 추진됐으나 광주·전남은 균형이전 등 현안에 발목이 잡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막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지역 내 공감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한 쇠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전남도는 이에 더해 초광역사업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남해안에 우주산업과 소재산업벨트를,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각각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성장축을 만들어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心, 이준석 손절?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사퇴
'윤핵관' '이준석 고립 작전'
윤리위 추대표 징계심의 분수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다. 정치권에선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를 신호탄으로 당내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이라 해석이 나왔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더해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에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세진 상황에서 선뜻 이 대표 편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비서실장직 사퇴를 선언한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대선 이후 약 3개월여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원이 돌연 사퇴하면서 양측 간 소통의 다리도 끊어진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설전을 주고받았고,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도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첫 해외순방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만 참석하고 이 대표는 배웅을 나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윤리위 기류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보이콧한 이후 지방을 돌며 윤 대통령의 지역 발전 공약을 챙기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최근 자신을 향한 당 내외의 압박에 대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뒤통수처럼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野 "국회의장 단독선출"...與, 김진표 항의방문 저지 총공세

민주 "임시회 소집일에 선출"
국힘 "명백한 법 위반"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속에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식물 국회'를 향한 비난이 커지자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도록 해놓은 상태다.

임시회 시작과 함께 분회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밀그림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백 상태를 방지할 수 없다"라며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일에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이 원(院)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히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오후 2시에는 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7월1일 단독 본회의 개최 및 국회의장 선출 강행 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면서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